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40 갈매기까지 가보자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튜브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66회 제한질 경축식	10 좋은 아침
10 팩트 10	00 중계방송 제66주년 제한질 경축식 30 강연 100℃ 특선(재) 50 TV중화 발간자전거(재) 55 튜브 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기본 좋은 날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네트워킹특선 필통 55 바르셀로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영상앨범 산(재)	35 리얼스토리 눈(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 스포츠 MBC배 전국수영대회	00 SBS 12 뉴스 30 닥터365 35 세상발전 유레카
1 30 뉴스 특급	00 긴급출동 24시(재) 35 우리말 겨우기(재)		50 주말특별기획 (호열경)(재)	35 한국의 맛
2 40 직인직설	30 영상앨범 산 (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00 SBS 뉴스 10 건강 클리닉
3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3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주로영 동물탐정(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국 원정대 40 헬로킴지 아해 지구탐험대	10 SBS 이슈인 사이트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튜브 생활체조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비타민(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00 최강! 탐플레시 30 푸리가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라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백일설의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해피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부부극장 공작지(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법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교자 제상에 이르면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도라마 50 시사현장 팩	00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별바라기	15 지기야
12 20 카톡쇼S(재)	30 인문강단 레앳(미지막편)	30 하이 스킨 러브 인(최희)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35 나이트 라인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	①:10 생활의 발견	①:35 리얼 체험 세상을 본다		①:05 풋볼 매거진 골!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기적’이라 말씀하셨죠”



영화 ‘군도’ 도치 役 하정우

봉두난발에 땀물이 자르르 흐르는 얼굴.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을 한 그는 ‘군도:민란의 시대’에서 도치 역을 맡은 하정우다.

그는 영화 초반 먹고사는 데 여념이 없는 백정 돌무치에서 의적단의 선봉 ‘쌍갈’ 도치로 변신하는 인물을 연기했다. 힘은 항우장사지만 아둔하기 짝이 없다. 틈 장애가 조금 있고 특하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말아 배배 꼬곤 한다. 가끔 텅 빈 시선으로 상대를 쳐다봐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도치는 유연하고 코믹한 인물이에요. 그가 처한 환경을 무겁지 않게 그리는데 필요했어요. ‘군도’에서 제가 맡은 부분이었죠.”

하정우는 15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영화는 제목처럼 조선 후기 학정에 시달리던 민초들의 반란을 소재로 했다. 꽤 묵직한 소재지만 영화의 분위기는 비교적 가볍다. 그런 분위기의 중심에는 하정우가 있다.

거지도 냄새가 나 도망갈 듯한, 마흔이 넘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하정우가 맡은 도치는 극 중에서 18~20세에 불과하다. 민머리에 구성된 사투리를 마구 뽐내내는 그는 극에 자주 웃음을 실어내리는 마동석, 조진웅보다도 오히려 순도 높은 웃음을 전한다.

“갑 갑속으로부터 ‘행이 말을 역이 18살이예요’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빵 터졌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도치는 지능이 모자라기도 한데, ‘12 몽키스’에 출연했던 브래드 피트가 표현한 걸 약간 참조했어요.”

지난해 ‘틀리코스타’를 통해 갑속으로 데뷔한 하정우는 ‘군도’가 연출 데뷔 후 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하는 첫 작품이다. 연출하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

“영화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어요. 배우로서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갑속에 협조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웃음) 군소리하기 보다는 내가 잡고 (다른 동료 배우들을) 좀 이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찍으면서 더 커졌어요.”

‘군도:민란의 시대’는 액션 활극을 바탕으로 했다. 광활한 벌판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칼과 창이 난무한다. 그런 액션 장면은 베테랑 연기자인 그로서도 쉽지 않았다.

“도치가 사용하는 칼은 나무로 만든 칼, 고무 칼, 진짜 칼 등

종류만 세 가지나 돼요. 진짜 칼은 매우 무거워 클로즈업 촬영 때 사용했고, 그보다 가벼운 나무 칼과 고무 칼로 액션 장면을 소화했습니다.”

협한 촬영 장면이 이어지다보니 상처도 입었다. 백성의 고향을 빨아먹는 천하의 고수 조운(강동원)과의 칼싸움 장면에선 조운이 휘두른 칼에 팔을 베이면서 파상풍 주사를 맞기도 했다. 말 타는 것도 고역이었다. 14시간 동안 연이어 촬영하다 보니 나중에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촬영 후 2주간 걸어 다니기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하정우는 현재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찍고 있다. 위화(余華)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허삼관 매형기’다. 70억 원이 들어간 꽤 규모가 큰 작품이다. 그는 영화에서 연출과 주인공을 맡았다. 상대 배역은 하지원. 전체 60회차 가운데 현재 19회차까지 찍었다.

“하지원 씨와는 호흡이 잘 맞아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베를린’(2013) ‘더 테러 라이브’(2013) 등 각종 히트작에 출연한 하정우는 총무로 설의 1순위다. ‘대세’라는 말마저 총무로 회자됐다. 그러나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런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의 성공을 ‘기적’이라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정도.

“아버지가 가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웃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기적이 일어나진 않는다. 과정에 충실할 때, 하정우가 경험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법.

“연기도 연출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언뜻 제가 정상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웃음). 물론 그런 결과가 전부 아니죠. 과실을 따먹기보다는 과정 안에 있을 때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나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칸영화제뿐 아니라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을 수도 있죠.(웃음). 어떤 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야겠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감사해 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작업하고 있어요.”

드라마 캐스팅 놓고 인터넷이 시끄럽다

KBS ‘칸타빌레 로망스’ 여주인공 논란

드라마 주인공 캐스팅을 놓고 또다시 인터넷 세상이 시끄럽다.

네티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배우를 천거하며 갑론을박하고, 일부 매체가 여기에 가세해 이른바 ‘캐스팅설’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온라인이 와글와글 요란하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된 주인공은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원작으로 제작하는 한국판 리메이크 버전의 여주인공 자리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노다메’였던 여주인공의 이름이 한국판에서는 뭐라고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티즌들은 그를 ‘한국판 노다메’라고 부른다.

네티즌은 각종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한국판 노다메’로 누가 좋을지를 얘기하며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일부 매체는 몇몇 캐스팅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국판 노다메’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특정 여배우의 이름이 거론되면 네티즌들은 즉각 찬반으로 나누어 악플과 선플을 경쟁적으로 달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마치 ‘낙선 운동’을 벌이듯 특정 배우의 캐스팅 절대 불가를 외치며 인터넷에서 시위를 벌이는 양상이다. 출연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아닌데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정작 제작사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로부터 이름이 거론되면서 본의 아니게 캐스팅 논란에 끼게 된 여배우도 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중 한명인 이하나는 15일 소속사를 통해 “제작사로부터 캐스팅 제안도 받지 않았다”면서 “대중의 추천은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tvN ‘고교처세왕’)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히 촬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영화 ‘수상한 그녀’ 등에 출연한 심은경이 노다메 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이상 ‘한국판 노다메’ 역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한국판 ‘노다메 칸타빌레’는 KBS 2TV를 통해 올 하반기 ‘칸타빌레 로망스’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편성도, 연출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심은경 이하나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제작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보내기도 한다. 여주인공 캐스팅을 화제 로 만들어 KBS로부터 편성 확정도 빨리 받고 드라마 홍보도 펼치겠다는 의도가 이번 캐스팅 논란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캐스팅 갑론을박은 처음이 아니다. ‘성균관 스캔들’, ‘궁’, ‘꽃보다 남자’, ‘공부의 신’ 등 만화원작을 드라마로 만들어 나 해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경우는 어김없이 논란이 벌어졌고 그것도 매번 이렇게 시끄러웠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작진이 캐스팅한 출연진의 상당수가 네티즌으로부터 엄청난 반대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작을 본 네티즌들은 원작의 캐릭터 이미지를 떠올리며 실제 캐스팅된 배우들과 비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작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절대로 ○○○는 안된다”는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우려를 뚫고 드라마가 성공하고 나면 처음의 논란이 속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드라마에서 연기한 배우들이 원작 캐릭터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게 된다. ‘성균관 스캔들’에서 주인공 이선준을 연기한 박유천 역시 그 대표적인 예. 그가 캐스팅됐을 때 여론은 대체로 ‘박유천이 웬 말이야’였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방송되면서 박유천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누리게 됐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스타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20 풀풀! 페퍼는 즐거워	17:45 두다다콩
05:40 장수의 비결(재)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리얼토크 부부	14:45 곤	19:00 리얼체험 땅
07:00 곤(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대미기행	15:15 마사와 곤	19:50 달라정여요(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세상의 중심, 에코도로>(재)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20:40 다크우울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대미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2:10 연중기획	16:00 당동당 유치원	<다이너미 필리핀군도 대탐험>
08:20 책과 땅(재)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30 한국기획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역사채널e	16:30 책갈피 요정 또보	<강원고갯길>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9:05 책갈피 요정 또보(재)	13:3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미술탐험대	13:5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꼬마버스 타요	23:35 장수의 비밀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4:10 와글와글 친구들	17:30 로보카 폴리	24:05 EBS 스페셜 공감 1·2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울림포스 <국어 I>	11:4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 <국어II>	12:10 5분 과학-지구과학 I	07:30 실용관찰 비법 노트	16:0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	12:15 수능 완성 <수학 I B형>	08:0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수학II>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00 " <국어 B형>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 <과학>	14:50 " <영어 ①>	09:50 " <영어 I>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1>(재)
05:00 " <한국사(하)>(재)	15:40 " <영어 ②>	10:30 " <도덕 2>	18:00 TV 중학 <역사(하)>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한국지리>	11:10 " <국어③④>	18:40 " <사회 3>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7:20 " <사회문화>	11:50 " <영어 2>	19:00 등업선공 <역사(하)>
07:30 2014 포스 <문법II>	18:10 " <경제>	12:30 등업선공 <사회 1>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08:20 울림포스 <영어독해 기본II>(재)	19:00 " <윤리와 사상>	13:10 " <역사 1>	20:40 " <세계사>
09:10 " <수학II>(재)	19:50 5분 과학-지구과학 I (재)	13:50 " <역사 2>	21:20 " <한문>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4:30 " <사회 2>	22:00 " <수학>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15:20 초등7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7일(음 6월 21일 己丑)

子	36년생 가법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48년생 상하의 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60년생 우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소홀히 한다면 힘들 것이다. 84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르나. 행운의 숫자 : 63, 86	午	42년생 소신껏 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54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느니라. 66년생 마음이 끌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78년생 유독 배어낸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8, 30
丑	37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어 큰 것을 얻는다. 49년생 구우일 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61년생 적극적으 임해 야겠다. 73년생 재물이 왕성 하느니라. 85년생 우물쭈기의 공론도 귀담아 들으라. 행운의 숫자 : 16, 39	未	43년생 말을 삼가고 행동을 신중히 해야겠다. 55년생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몹시 불만족스럽겠다. 67년생 사실 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느니라. 79년생 울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웃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1, 06
寅	38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50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62년생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74년생 시선을 딴 데로 돌려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40, 55	申	44년생 양명성을 띠고 있어서 인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56년생 알려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인다. 68년생 갈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부당하다면 결코 용납할 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1, 37
卯	39년생 손꼽아 기다릴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51년생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 식견이 있는 이의 조언을 구하라. 63년생 연장되거나 보류될 수다. 75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08	酉	45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57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보람이 따를 것이나. 69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 81년생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72
辰	40년생 사실로 확인 되었을 때는 이미 늦으니 예견한 후에 대처하라. 52년생 갑작 놀라겠지만 심경에 끝날 수다. 64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76년생 화려한 빛깔로 변색변적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36, 49	戌	46년생 시선을 사로잡고 귀 기울여야 하는 바가 보인다. 58년생 집착을 떨쳐버리려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70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지진 이치이다. 82년생 효과가 있는 약을 얻는 원리이다. 행운의 숫자 : 13, 23
巳	41년생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53년생 이치에 밝다면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다. 65년생 품어 왔던 의구심이 풀릴 수도 있는 날이다. 77년생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57	亥	47년생 흥룡한 것 뒤에는 아류가 따르는 법이다. 59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71년생 광심 한다면 여러 경우를 당할 수 있다. 83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47